

“자연을 그대로 옮겨놓듯 채색”

산문박의 禪

단청장 박준주 씨

“색깔만 칠하는 것은 죽은 단청이야. 손으로 하지 말고 마음으로 해야지...”

69세의 단청장은 자로 재듯 꼼꼼히 매서운 눈초리로 감독하며 화원들의 손놀림이 흐트러지려는 기색이 보일 때마다 여지없이 장군족비를 후려치듯 일갈한다.

51년의 유구한 세월동안 숲한 어려움 속에서도 외도 한번 없이 울곧게 전통단청 맥이기에 진력해 온 박준주 씨(한국단청협회 회장)는 매일아침 30분~1시간씩 좌선에 든 뒤 절주위를 도회하며 마음을 바로잡는 것으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외형적으로 흉내내기에 급급한 것은 한낱 나무토막을 물들이는 것에 불과하다. 생명력을 불어넣은 것만이 작품”이라는 화두로 뼈를 깎는 정진을 통해 입태된 작품들은 불국사 동화사 허인사 등 전국 사찰에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로.

주며 공경과 절에만 장엄하는 작업”이라고 정의했다.

고정되고 변화하지 않는 이미지의 단청작업은 아무리 집을 잘지어 놓아도 장액을 바르게 긋지 못해 집까지 기울어지게 하는 것과 같다. 또 건물과 건물사이를 조화시키는 작용도 하기 때문에 단청장에게는 어떠한 미학에도 집착함이 없고 정과 동에 기울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 다시말해 자연과 합일되는 자연스러움이 단청의 생명이라는 것.

박준주씨의 단청인연은 광복되던 해인 1945년 18세 약관의 나이에 전북 김제 백구면의 부유사 김일석스님의 문하생으로 입문해 습화(그림을 배우는 것)로 시작한다. 맨처음 맹화부터 시작했는데 4~5년동안 시왕(시왕상) 초 1천장, 보살(보살상) 초 1천장, 전왕(사천왕상) 초 1천장 등 무려 3천장을 그려냈다. “그렇게 해야 중구난방이 되지



“사회상까지 투영시켜야 생명력 있는 작품돼요”

“작품은 그것을 그린 화원의 표상이 나타나는 것은 물론 그 시대 모든 사회상이 투영됩니다. 정령과 혼이 박혀있는 것은 세월의 흐름에 관계없이 세계 어느 누가봐도 탄복의 대상이 됩니다.”

길을 지나가다 단청 불상 조각을 할 곳 쳐다보기만해도 그것을 만든 사람의 내재된 심리가 감지된다. “아무리 의적으로 보면 입이 벌어질만한 작품들도 교묘하지만 하지 정교하지 못한 것은 작가가 마음을 탄데 두고 만든 작품이란 느낌을 준다”며 작품 하나에 혼과 생명력을 불어넣기 위해서는 작가 스스로도 부단한 노력이 있어야할뿐 아니라 조금씩 변화해가는 변천과정도 민감하게 감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불화는 하나의 색채에도 묘미가 있지만 정수는 선에 있다”는 박준주씨는 “훌륭한 불상은 의사(衣裝)를 보면 아름다운 여인이 얹은 옷을 입은 듯 유연한 형상이 상호로 올라가 입가에 웃음을 띠고 엄하며 눈은 근엄하고 자애롭다”고 말했다. 그리고 한민족의 당당하고 밝은 기상이 고스란히 드러나는 고경이가 거기 있다는 것을 그는 거듭 강조했다.

박씨는 단청에 대해 “재물을 오래가져 하고 목수의 거친 손길을 마무리해

18세에 입문 탕화 3천여장 습화 51년간 울곧게 전통단청 맥이기 매일아침 좌선·포행으로 마음안정 전국사찰 만행 ‘내적 단청’도 몰두

않은 기초적인 필력을 얻는다’는 스승의 가르침은 엄했다.

그런 다음 현장을 찾아다니면서 입체(채색하는 것)를 시작했고 단청 개금은 보기만해도 저절로 응송되었다. 그것은 고행의 세월에서 자연히 우려나온 힘이었다. 어느 순간부터 ‘개금하면 박준주’라는 경지에 이른 것.

그러나 그는 만족하지 않았다. 더 큰 욕심을 낸 것이다. 한 순간 출연히 모든 것을 버리고 10년간 운문해 만행을 했다. 전국의 거의 모든 사찰을 찾아다니며 자기 자신의 인생을 정리하고 ‘내적인 단청’ 찾는 작업에 몰두했다. 10년 수행 끝에 자신의 내적 단청을 하고 나서 박준주씨는 다시 붓을 들었다. 그는 후배들을 위해 강좌를 열고 화

원들의 전신인 스님들의 맥을 이어가는 것이 무엇보다 시급한 과제로 보고 맥찾기에 열중이다. 한국불교미술의 이론적 체계화 작업에도 관심을 기울이고 있다.

“화원은 집착을 떠난 무념무상의 일심이어야 합니다. 시대의 흐름에 따라 돈과 환경에 집착하면 올바른 작품이 나오지 않지요.”

옛날에는 화원들이 스님이었고 보통 3~5년에 걸친 정성으로 불사가 현장에서 직접 이루어져 잘 되었다. 옛날 작품이 현재의 작품보다 나은 이유가 여기에 있다. 화원스님들의 정신과 맥을 이어야 한다는 박씨의 주장은 설득력이 있다.

“대체적으로 인도·중국·한국으로 전

래도를 설명하는데 직접 확인해 보신 선의 굵기와 방식, 작도법이 인도와 우리나라는 똑같은데 비해 중국은 다릅니다.” 그 이유를 캐보아야 하는데 눈을 늦게 떠서 안타깝기 그지없다고 하지만 사실 박씨는 한발짝도 물러서지 않고 용공로처럼 큰 열정으로 조선시대를 거치며 실무위주로 흘러버린 한국단청의 학술적 정립을 위한 역사연구에 매진하고 있다. 그는 그것이 맥이 퇴색되고 있는 전통단청을 살리는 최선의 작업이라 생각하고 있다.

이제는 단청을 하는 것이 단순한 장엄을 넘어 치열한 구도형처럼 느껴진다. 그 치열함이 강하면 강할수록 그는 대자유, 해방감을 더욱 깊게 느낄 수 있다. 시시때때로 닥쳐오는 단청으로 채색된 삶의 의문영어들들을 지워내는 작업이기 때문이다.

“고개숙인 조선의 불상보다 체구가 당당하고 활달하며 균형있는 신라불상의 모습이었으면 합니다.”

조용히 읊조리는 박준주씨의 말을 들으며 혼돈의 세계에서 헤매어 다니는 우리들의 자화상은 어떤 모습일까 가만히 그려보았다.

김원우 기자

왜 두렵고 공포심이 나는지요

문 혼자서 아간산행을 조용히 즐기고 싶는데 막상 아간산행을 하러니 두렵습니다. 공포감이 벗어나는 방법은 없는 지 여쭙습니다.

(최정근·서울 영등포구 당신동)

답 어떤 대담이 나올지 알고 계시면서 물으시는 것 같군요.

아다시피 ‘나’라는 생각이 공포와 불안을 낳습니다. 내가 있다는 생각, 내가 한다는 생각이 있는 한 사람마다 정도의 차이는 있을 지언정 공포와 불안이 완전히 사라지는 않습니다. 까짓것 죽기밖에 더하겠느냐는 정도로 생사문제를 뛰어넘을 수 있어야 어떤 경계가 닥치든 광상심을 유지할 수 있지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런 두려움이 어디서 나오느냐는 것입니다. 낮에는 혼자서 산행을 해도 두렵지 않더니 밤에는 두렵다, 그러면 빛이 다르냐? 어둠 때문인데 어둠이 왜 무섭냐? 어둠을 두려워하는 마음은 어디서 나오는 것이냐? 그렇게 따지고 보면 무슨 두렵지 않습니까?

내가 예전에 혼자서 산속을 몇 년이고 돌

스님께서 한마음을 말씀하시는데 한마음과 마음의 차이는요? (익명의 독자)

답 우주의 근본이 내 근본과 다르지 않고 저 태양의 근본이 내 근본과 틀리

아닙니다. 우리가 혼자 먹고 혼자 일하는 줄로 생각하시겠지만 우리는 같이 먹고 같이 일합니다. 우주 일체 삼라만상은 한 통속이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 조상 네 조상이 따로따로인 줄 알지만 실은 따로가 아닙니다. 우리는 한마음으로서 같이 먹고 같이 일하고 같이 살고 같이 돌아갑니다. 일체가 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몸통이만해도 그 속에 얼마나 많은 중생이 들어 있습니까? 이 몸통이가 그대로 소우주란 말입니다. 그러니 내가 먹는다는 나 혼자 먹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물론 잘 안믿으시겠지만, 그러나 부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듯이 우리의 근본은 시공을 넘어 같이 먹고 있습니다. 그림을 의심없이 믿어야 합니다.

우리가 먹을때 조상과 같이 먹느냐고 하셨는데 일체가 같이 먹으니 조상뿐이겠습니까? 한순간도 빼놓지 않고 시공을 넘어 더불어 살고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어디 9대뿐인가요. 3대다 5대다 9대다 그러는데 삼천년

지 상 상 담

길을 묻는 이에게



독자문의를 받습니다. 불법을 공부하는 중에 특히 신학에 대해 의문이 나타나 궁금한 점이 있으면 사신·팩스 보내주시시오 접수되는 순서대로 응답해 드립니다. 이 지상상담은 조계종 한마음선원 대담스님께 묻고 답을 들어서 편집자가 정리·게재하게 됩니다.

보낼곳: 110-170 서울시 중로구 건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전화: (02)722-4162 팩스: (02)737-0698

아다녔는데 어느때 한 묘지에 기대어 잠이 막 들려는데 묘지속에서 두런두런 말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만 놀라서 도망치다가 땀에 젖어 주저앉았는데 그때 무슨 나무 그루터기인가에 엉덩이를 짚었습니다. 그 순간에 공포는 싹 사라지고 아른 생각뿐이더라 말입니다. 그러니 어떠했습니까?

아! 그만 속았구나. 귀신은 무슨 귀신, 귀신이 있다고 생각하면 있는 것이고 없다고 생각하면 없는 것! 하고는 다시 그 묘지로 돌아가 버개삼아 한숨 잘 잔적이 있습니다.

어둠을 두려워하는 것도 내속에서 나온 것이지 어둠이 무슨 귀신짓을 하면서 처사님께 덤벼드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온걸 그속에서 해결해야지 방편은 무슨 방편입니까? 무슨 주문같은 것이라도 있을줄 아셨어요?

내가 진짜 방편 하나 알려드리지요. 무서움도 거기서 나온 것이니 거기가 되 집어넣어라. 무섭게 하는 것도 어둠이 아니라 거기서 하는 것. 다 내 속에서 나온 것이니 해결하는 것도 내 속에서 해결해야 합니다. 그러니 정히 뵈시면 ‘주인공, 무섭게 한 것도 나이니 안무섭게 하는 것도 너’라고 말겨버리세요. 그뿐입니다.

윤회와 천도를 알고싶습니다

문 전생은 있습니까? 인간은 윤회라는 틀속에서 영적으로 진화합니까? 죽은 옷속이 있는 것이라는데요. 또 우리가 음식먹을때, 일할때 조상과 같이 하는 것인지요? 조상천도하면 9대까지 천도가 됩니까?

전의 부처님이 오늘에 계시고 오늘이 곧 삼천년 전인데 몇대라고 정할게 없습니다. 질문하신 분이 3대다 하면 3대고 9대다 하면 9대고 영원한 오늘이다 하면 영원한 오늘입니다. 그러니 따로 전생이다 후생이다 할 것도 없습니다.

과거는 짙어지고 나왔으니 없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으니 없습니다. 고로 지금 이 찰나입니다. 찰나도 맑이 찰나이지 찰나라고 할 고정된 순간이 없으니 현재도 없는 셈이지요. 그냥 일체만물이 고정됨이 없이 나뉘고 돌아가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래서 공입니다.

전생이라는 것, 윤회라는 게 다 마음으로 짓고 마음으로 받는 것입니다. 본래 공인줄을 모르니까 과거에 지은 업이 업식으로 재촉착륙 켜져서 오늘의 현재의식에 작용을 하는 것입니다. 말하자면 윤회하는 주체가 있어서 전생이다 후생이다 하는 게 아니라 그게 다 업식의 작용이란 말입니다.

한 생명체가 탄생하는 데는 영원한 생명과 업식과 사대로 똥처럼 육신의 계합이 따릅니다. 영원한 생명은 달리 불성이라해도 좋고 진여라 해도 되고 한마음이라 해도 됩니다. 이 한마음은 늘지도 줄지도 않으면서 모든 것의 근본입니다.

우리가 이 공부하는 목적은 궁극에 가서 해탈 열반하자는데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우리의 삶이란 진화의 과정입니다. 우리가 젊어지고 있는 음식의 노비문서를 다 태우고 대자유인이 되기까지 기다린 길고 짧다면 짧은 그 길에서 몸이 늙어지면 다시 새 옷으로 갈아입어 가며 마음을 닦아나가는 것입니다.

선운사 도솔암은 잘 알려지지 않은 기도보궁이라 심오한 적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도솔암 성지순례 및 방생법회 안내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보궁도 참배합니다.”



도솔암 절내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



도솔암 절내 도솔암 내원공

선운사 도솔암은 역사가 1,400여 년이 넘는 백제고찰로서 해동제일의

지장기도 보궁입니다. 또한 절내에는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과 보물 제1200호 마애석불이 모셔져 있고 천연기념물인 동백꽃과 상사꽃으로 유명한 서해제일의 기도명령도량입니다.

도솔암 주위에는 신라 진흥왕의 기도지인 전룡굴과 용문굴의 절경이 있고 또 500m 이내에 맑은 계곡물을 막은 5만 평 규모의 거대한 저수지(도솔제)도 있습니다.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은 절의 방생기도도량인 저수지(도솔제)에는 100여 대의 대형버스를 수용할 수 있는 주차시설도 잘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성지순례 불자님들을 위해 이빈에 선운사 큰 절에서 도솔암까지 대형버스 길을 뚫었고 도솔암 입구에 전여 평의 주차장도 새롭게 마련하였습니다. 한 곳에서 방생도 하고 해동제일의 지장보살도 친견하시기 바랍니다.

도솔암 오는 길

승용차편

- 1. 경부고속도로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정음IC에서 내려 최해진 고창방향 흥덕 선운사까지 15km
- 2. 남해고속도로나 88고속도로를 이용 호남고속도로로 진입 백암SA에서 내려 최해진 고창읍까지 10분 고창읍에서 선운사까지 20km

열차편

서울역~정음역 새마을 또는 무궁화열차 이용 정음역에서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버스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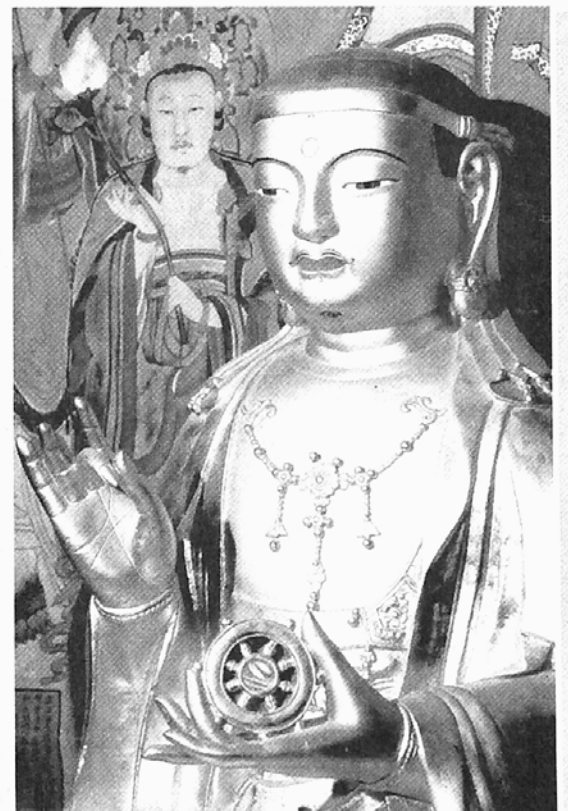
강남 고속터미널~고창읍이나 정음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 부산, 경남, 대구, 경북방향은 경주고속터미널에서 하차 선운사행 또는 고창행 버스를 이용하여 선운사에 도착 도솔암까지 택시 이용
- ◆ 보궁참배 및 방생법회를 오실 때 사전연락을 주시면 무료공양 및 안내를 준비해 드리겠습니다.

해동제일 지장기도보궁 선운사 도솔암

전화: (067) 64-2861, 63-4612 팩스: (067) 64-8317

문의처 부산·경남: (051) 632-0383/대구·경북: (053) 255-2838/서울·경기: (02) 238-9910



도솔암 내원공 보물 제280호 지장보살